

<지난주 말씀>

▶다시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오늘 예수 능력이 내 안에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밀은 현재성입니다. 예수 부활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첫 열매로 내게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첫 열매의 결과로 그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부활의 비밀입니다. 오직 약속대로 오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고 야고보서를 들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지난주에 메시지를 받았습시다. 오늘은 그 흐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말은 너희가 그 흐름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맞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놀랍게도 그리 행하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11:1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상과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약속된 그 구원자가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것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에 따른 증거는 무슨 증거입니까? 사탄을 멸하신 왕의 증거,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제사장의 증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받은 영생의 축복 속에서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피의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기도의 흐름을 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가지 복음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사람이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애서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이 흐름이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흐름입니다.

▶왜 우리가 강단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생각을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점입니다. 의외로 생각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라면 생각을 복음화해서 살리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죽겠다 이러는 건 생각이 복음화가 안된 것입니다. 죽겠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겠구나, 이게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내 환경이 이렇고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되는구나!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고 작아서 안 돼, 그래서 되는구나,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99.9%가 불신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생각을 복음화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언약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흐름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흐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보좌를 우리와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와 예수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 중보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말로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1.문안 인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약1:1)

야고보가 야고보서 첫 장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고 말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1:2)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게 맞다면 시험은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시험이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사실, 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아는 사람은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약1:3)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실상과 증거에 대한 그 믿음이 나를 더욱 더 든든하게, 발판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4)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삶에 필요한 지혜, 업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약1:6)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흐름을 타는 사람이 맞다면 현실, 사실, 진실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1:7)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8)

두 마음을 품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약1:9-10)

가난하던 부하던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나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약1:11)

의심하는 것은 말그대로 인생 자체가 비참한 것입니다. 쇠잔한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쇠하지 않는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2. 시험을 참는 자

▶우리는 시험을 인내를 통해서 나를 견고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약1:12)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이나 시련이 있다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같은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시험을 견뎌내야 합니까?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약1:13)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험은 나를 견고케 하는 응답이요 축복이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견고케 하는 시험은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흐름 속에 든든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시험은 나를 견고케 하는 응답과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4-15)

각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골3:5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약1:16)

시험이 온다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것이지, 그 시험이 사람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흐름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1:17)

회전하는 그림자는 무슨 말입니까?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동일하고 영원한 흐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1:18)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3.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1:19)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도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더디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약1:20)

화를 잘 내는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약1:21)

듣고 말하고 성내는 이 사람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처럼 받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만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1:22)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약1:23-24)

거울로 자기 얼굴을 매일 봐 봤자 그게 그것입니다. 맹탕인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것입니다. 맨날 얼굴 보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1:25)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선 안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1:26-27)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가 맞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24 25 영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 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구하는 자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현실 앞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성내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당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